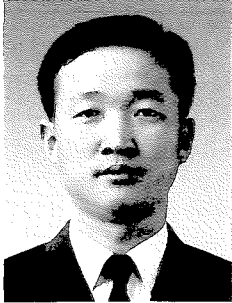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의 現代 戰略的 의미



海 軍 大 學
少領 김 경 영*

◇ 目 次 ◇

I. 서 론	2. 겔프전쟁
1. 연구목적	3. 평 가
2. 연구범위 및 방법	IV. 삼위일체론의 현대 전략적 의미
II. 전쟁의 삼위일체 이론	1. 전쟁의 변화와 삼위일체론
1. 전쟁의 삼위일체적 본질	2. 기술의 발달과 삼위일체론
2. 전쟁의 이중성	3. 삼위일체 이론의 비판적 검토
3. 전략의 선택과 삼위일체	4. 삼위일체 이론과 현대전략의 고려요소
III. 삼위일체 전쟁이론을 적용한 전쟁사례	V. 결 론
비교	※ 참고문헌
1. 월남전쟁	

摘 要

군사문제 연구의 첫번째 단계는 바로 전쟁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전쟁

* 해군사관학교 졸업, 해군대학 및 국방대학원 졸업(군사전략 석사), 고속정 편대장, 해본 전발단 전력 발전처 부대계획 담당(現)

철학의 탐구를 통해 전략의 출발점과 임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전쟁중심적 접근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군사이론서인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은 연구의 의미가 깊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대한 이론적 구조를論한 국내의 연구문헌은 제한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삼위일체 이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특히, 해군에서는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연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더하여 전혀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전쟁의 삼위일체적 본질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전략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현대 전략환경하에서 삼위일체론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의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인 미국이 수행한 재래식 전쟁 중의 대표적 사례로서 월남전쟁과 걸프전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써 해석적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사례비교와 해석적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전쟁의 본질적 현상을 설명하는 클라우제비츠의 고전적인 삼위일체 이론은 현대 전략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발전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삼위일체 이론은 산업·기술의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삼위일체 이론의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이론적 의미는 삼위일체 이론이 불변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균형적 조화를 강조하는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삼위일체 각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전쟁의 승리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전략·정책적 의미는 첫째,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에 대한 조화와 분별은 다시 한번 중요하다. 둘째,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국민의 지지 획득이 중요하며, 국민의 지지는 전쟁수행을 위한 정부의 힘을 증가시켜준다. 셋째, 실제 전장환경에서 생겨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리발전과

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용이 요구된다. 넷째, 지휘관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발전시키고, 지휘통제체제에 있어서 권한의 집중과 분산에 조화를 기하여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요소가 되는 기술적 요소에 관련하여 고도의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연구결론에 도달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로는 첫째, 한국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이 취해야 할 삼위일체적 균형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둘째, 삼위일체적 균형의 해결자로서 군사적 천재를 대체하는 인재교육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셋째, 삼위일체에 기술의 요소를 더한 四位一體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등이다.

사상과 이론, 실천영역의 상호간에 존재하는 강력한 연결논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은 전략과 정책은 그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해군의 군사이론 연구자, 정책실무자, 전장의 지휘관들이 균형된 전략적 사고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I. 서론

1. 연구목적

군사문제 연구가 체계화되는 기준에서 볼 때 군사문제 연구의 학문적 기본 자세는 첫째, 전쟁이란 무엇인가? 둘째,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셋째, 전쟁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어떻게 전쟁을 방지할 것인가? 라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¹⁾ 즉, 군사문제 연구의 첫번째 단계는 바로 전쟁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전쟁철학의 탐구를 통해 전략의 출발점과 임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Julian Lider, *Military Theory*(Aldershot : Gower, 1983). pp. 23~24.

군사연구의 영역을 크게 '전쟁중심적 접근'과 '군사력 중심적 접근'으로 구분할 때,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은 전쟁중심적 접근방법에 속하는 것이며, 매우 전통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물론 현대에 이미 국가의 힘과 국가안보문제를 주제로 하는 군사력 중심 접근방법이 국가의 대외정책 지원수단으로 많은 有用한 이론을 제공하여 왔지만,²⁾ 군사력의 분석 역시 전쟁, 전쟁의 방지, 전쟁의 준비 등과 직접 관련을 갖기 때문에 전쟁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인 전쟁중심적 접근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군사이론서인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은 연구의 의미가 깊은 것이고, 실제로 19세기 이래 동·서양의 군사연구에 있어서 「전쟁론」이 흥미있는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클라우제비츠가 육군장교로서 전쟁론에서 나폴레옹 전쟁의 地上戰役을 主題로 포함하고, 당시 전쟁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러 해전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군장교들의 연구주제로 전쟁론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어 왔다.³⁾ 그러나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의 전체적 특성과 본질에 대한 명료한 파악, 그로부터 전개되는 종합적인 전쟁이론은 해군장교를 포함한 모든 군사문제 연구자들로 하여금 전쟁론을 외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 역시 “전쟁의 전체적 局面性을 띤 전쟁의 지도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전략학의 과제”라고 하면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동조하고 있다.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는 전쟁의 본질, 정치·군사적 목적, 전쟁에 있어서

2) 위의 책, p. 11.

3) John E. Tashjeon, "Clausewitz : Naval and Other Consider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May - June 1986(Newport R.I. : Naval War College, 1986), p. 53.

4) 모택동, “중국 혁명전쟁의 전략문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모택동전집」, 김정계·허창무 역, 「모택동의 군사전략」(대구 : 중문출판사, 1994), p. 70.

사기·심리적 영향, 전략과 전술, 공격과 방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대한 이론적 구조를 논한 국내의 연구문헌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삼위일체 이론에 대한 연구는 특히 빈약하다. 해군에서는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연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더하여 전혀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0년대 월남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에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연구가 큰 부흥을 이루었다. 1976년 해군대학의 공군교환교수 맥키삭 중령(David Macisaac)과 전략학처장 필립 크롤(Philip Crowl) 교수는 해군대학내에서 클라우제비츠 전쟁철학의 재발견과 교육과정 포함을 위해 노력하였고,⁵⁾ 이것은 공군과 육군에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미국은 정부와 군대, 의회에서 월남전쟁의 패배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을 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걸프전쟁에서 베트남 증후군을 떨쳐 버리고⁶⁾ 미국 국민과 군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승리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의 본질 중에서 삼위일체적 특성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전략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현대 전략환경하에서 삼위일체론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삼위일체론의 개념과 이론체계는 무엇인가? 둘째, 그 삼위일체 이론을 적용하여 전쟁사례를 비교한다면 어떠한 교훈을 갖는가? 셋째, 현대에도 과연 삼위일체 이론이 그대로 유용한가? 만일 아니라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5)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II :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lf War*(New York : Dell, 1992). p. 55.

6) 위의 책 p. 82.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인 주제에 있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제시된 전쟁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전쟁중심의 연구범위로 제한하며, 지상, 해양, 공중과 같은 전장환경 차이에서 비롯되는 각군별 전략문제는 논의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전쟁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삼위일체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 군대, 정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그들에 의해 창출되는 전쟁의 격렬성과 정책적 이성, 戰場의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였다.

비교연구의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인 미국이 수행한 재래식 전쟁중의 대표적 사례로서 월남전쟁과 걸프전쟁으로 선정하였다.

나.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제인 삼위일체론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본질에 관하여 제시한 사상적 아이디어의 일부분이다. 論者는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적 접근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자연현상을 說明하고 정신현상을 理解한다.'고 한 딜타이(Wilhelm Dilthey)의 命題 이래 자연과학의 說明과 사회과학의 理解가 구별되는 方法論的 二元論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⁷⁾

그러나 사회는 인간적 행위로 구성되었으며, 이 행위를 움이는 인간의 믿음, 가치, 의도 등의 이해가 사회사상의 파악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하며 베버(Max Weber)가 정의한 바와 같이 '解釋的으로 理解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因果的으로 說明'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⁸⁾

7) 이상철,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철학」(서울 : 민음사, 1983), p. 219.

8) 차인석, "사회과학의 과학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철학」(서울 : 민음사, 1983), p. 30.

論者는 특히 전쟁철학자로서의 클라우제비츠에 대해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전쟁론에 대한 이해가 해석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하며, 클라우제비츠의 접근방법이 매우 비판적이고 논리학과 더불어 철학적, 변증법적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츠가 말하고자 한 바를 이해하기 위한 思考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전쟁론에 內在된 논리를 규명할 수 있다.'⁹⁾는 견해에 동조한다.

연구자료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Vom kriege*)을 英譯한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피터 파레트(Peter Paret)의 *On War* 그리고 이종학, 김홍철, 강창구 등이 한국어로 번역한 「전쟁론」을 기초로 하여, 클라우제비츠 사상에 대한 諸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전쟁론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전쟁이론을 고찰하고, 제 III 장에서는 삼위일체 이론을 전쟁사례에 적용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 IV 장에서 삼위일체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본 후 제 V 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II. 전쟁의 삼위일체 이론

1. 전쟁의 삼위일체적 본질

가. 삼위일체의 개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묘사하면서 “전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약간씩 그 색깔을 변경시키는 카멜레온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그 현상 전체를 통해 지배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기묘한 삼위일체로

9) Raymond Aron. *Clausewitz : Philosopher of War*. Cristine Booker and Norman Stone trans. (New York : A Touch Stone. 1986). pp. 1~7.

구성된다.”라고 함으로써 전쟁의 삼위일체론을 제시하였다.¹⁰⁾

이 세 가지의 극(Poles) 또는 경향(Trends)은 첫째로 맹목적인 자연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증오와 적개심, 둘째로 개연성과 우연성이 개재된 정신세계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케 하는 환경의 도박성(또는 기회), 셋째로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도구라는 지적 종속의 요소 등이다. 이중 첫번째는 국민, 두번째는 전장환경에 있는 지휘관과 군대, 세번째는 정부에 관한 것이다. 즉, “전쟁에서 타오르는 정열은 항상 국민대중에게 내재하며, 우연과 확률성이 지배하는 전장환경에서 생기는 용기와 재능의 역할 정도는 지휘관과 군대의 특성에 의존하고, 정치적 목적은 정부의 소관인 것이다.”¹¹⁾

클라우제비츠는 이 세 가지 경향이 균형있게 포괄되어야 함을 “하나의 이론이 이들 세 가지 경향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나 그들 사이의 관계를恣意的으로 설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현실에 모순되어 그 이론이 전체적으로 무용한 것이 될 것이므로 세 가지 경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¹²⁾라고 역설했다. 이는 하나의 현상이 종합적이기 위해서 세 가지 경향이 균형있게 정지되는(Being suspended)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쟁에서 세 가지 요소가 균형있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종합적 전체로서 삼위일체인 것이다.

나. 삼위일체 개념의 형성 배경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 개념은 다른 군사사상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이론체계이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당시 독일의 철학적 토양인 칸트(Immanuel Kant : 1724~1804),

10) K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trans., *On War*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 89.

11) 위의 책

12) 위의 책

피히테(J. G. Fichte : 1762~1814), 헤겔(F. Hegel : 1770~1831)의 사상적 토대위에서 집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개념 역시 당시 독일에서 확산초기에 있었던 인도유럽철학의 사회사상으로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유럽철학의 삼분적 사회사상 또는 사회기능적 3분개념은 근대사회가 3개의 계층(Three estate)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학문적 표현이다. 그 첫번째는 支配者(Ruler), 두번째는 戰士(Warriors), 세번째는 平民大衆(Commoners)이다. 三機能的 사회사상은 각 계층의 실체적 특수성과 사회적 동일성에 균형적 감각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인도유럽철학은 클라우제비츠 시대에 확산단계에 있었고, 그의 친구 중의 하나인 쉴레겔(August W. Von Shlegel)은 1819년부터 본(Bonn) 대학의 인도철학교수로 재직했다.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쉴레겔이 이 분야에 대한 조언을 클라우제비츠에게 했을 것이고, 클라우제비츠로 하여금 삼위일체적 현상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

다. 각 요소별 특성

(1) 인적 요소 : 원시적 열정과 적대적 증오심

클라우제비츠는 인적 요소를 적개심으로 정의하고, “맹목적인 자연적 폭력”으로 간주했다. 이 맹목적 폭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자연발생적이다. 이러한 인적 요소는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적 개념의 기초가 된다. 정열, 본능, 흥분, 증오심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人間心性은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의 첫번째 경향(극)을 구성한다. 이러한 경향을 강조할 경우 전쟁은 모든 요소의 교류가 불가능한 일방적 흐름의 가능성만을 갖게

13) John E. Tashjeon. 앞의 글. p. 57.

되고 이른바 절대전쟁(Absolute war), 혹은 관념전쟁(Ideal war)이 되는 것이다.¹⁴⁾

兩者가 대립하는 전쟁에서 이러한 경향은 상호적 양극행위가 발생하고, 무한적이고 가속적인 폭력이 브레이크 없이 치닫게 한다.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 증오의 이러한 전쟁형태는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경향 요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우연과 개연성의 요소 : 지휘관과 군대에 대한 전장의 불확실성

원시적 증오와 적개심에 의한 무제한적 폭력의 근원이 되는 첫번째 요소를 제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의 불확실성이다. 전쟁이 어떤 양상을 띠 것인가? 전투가 어떻게 결판날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승자와 패자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전투는 항상 强者가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특정 순간에 다양한 압력을 받는 개인은 혼란 속에서 장래에 대한 예측이나 노력의 집중이 어느 때는 좋게, 또 어느 때는 나쁘게 판명되기 때문이다.¹⁵⁾

전쟁에서의 모든 행동은 '전쟁의 안개(Fog of war)'라고 불리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 불확실성은 미지의 적 상황, 전장환경 그리고 심지어는 우군에 관한 未知의 상태로서 전쟁을 지배한다. 군대는 정보수집의 노력을 통하여 이같은 未知의 상황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는 없다. 전쟁의 특성상 절대적 확실성을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14) 류재갑·강진석, 「전쟁과 정치」(서울 : 한원출판사, 1989), p. 79.

15) Paul Seabury and Angelo Codevilla, *War : Ends and Means*, 국방대학원 역, 참고서지, 「전쟁의 목적과 수단」(서울 : 국방대학원, 1994), p. 7.

전장에서 모든 행동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自家撞着的인 첩보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¹⁶⁾

다시 말해서 전쟁의 안개 속에서는 불확실성의 환경적 마찰로 인하여 어느 극단으로의 경향에 대해서도 제한적 경향이 생기게 된다. 불확실성 때문에 순수한 합리적 경향이나 완전히 비합리적 경향이 모두 제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이차원적 요소로 만드는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상대방의 동기에 대한 추측(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우연성이 개입되어 전쟁을 도박성적 성격을 띠게 함과 동시에, 지휘관의 자유선택적 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창조적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¹⁷⁾ 영역의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3) 지적 요소 : 정부의 이성적 자아통제(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쟁)

클라우제비츠는 정부 또는 국가를 유일한 지적 실체로 보고 정치 또는 정책을 지성(Intelligence, Verstand)과 동일시 한다. 이 지적 능력이 전쟁을 종속적 도구로 만들고, 전쟁을 통제와 분별의 대상이 되게 만들며, 목적적이고 이성적(합리적)인 현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에 관한 정의 중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목적)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¹⁸⁾는 정의는 여기에서 비롯된 정부의 지적 능력을 신뢰하는 표현이다.

정부의 지적 능력은 목적을 지니지 아니한 순수한 감정적 힘인 인적 요소에 대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힘이 된다. 즉,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작용함으로써 비로소 목적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정부는 전쟁 그 자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政爭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다.

16) U.S. Department of the Navy, H.Q. U.S.M.C., Warfighting. 김현기 · 이장훈 역, 「전쟁수행론」, 상교참 300-3-13(서울 : 해병대사령부, 1992), P. 12.

17) Karl Von Clausewitz, 앞의 책, p. 89.

18) 위의 책, p. 87.

그러나 정부의 지성만이 완전히 작용한다면 전쟁은 정치적 기능의 한 부분으로서 완전히 정치적인 전쟁이 되지만, 다시 두번째 우연과 개연성의 요소에 의해 국민, 군대, 정부에 의해 생성된 삼요소가 상호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경향 사이의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전쟁은 비로소 현실전쟁으로 나타나며, 이 현실전쟁을 수행하는 術로서의 전략은 상호대립하는 양측의 의지투입과 자아통제의 分別智(Prudence)에 속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쟁의 안개 속을 항행하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이므로 모든 교전국들이 풀어야만 하는 실제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찰로부터 군사전략에 대한 관심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¹⁹⁾

2. 전쟁의 이중성

가. 변증법의 형식적 채용과 이중성

클라우제비츠는 헤겔의 機械論的 변증법(正·反·합의 발전이론)에 따르기 보다는 변증법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빌어쓰면서도 正(인적 요소), 反(정부의 지적 요소)의 대립과 새로운 合의 生成 대신에 새로운 극(Pole)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클라우제비츠는 세 가지 요소(경향 또는 극)의 조화에 의한 자율적 정지 또는 共存에 의한 자아통제를 현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실은 새롭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단일현상의 상태가 아니라 양극성을 포괄하는 이중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²⁰⁾

따라서 삼위일체의 균형과 이를 통한 전략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이중성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클라우제비츠의 발전적 공헌은 전쟁의 이중성 개념과 군인의 역할에

19) Paul Seabury and Angelo Codevilla, 앞의 책, p. 90.

20) 류재갑·강진석, 앞의 책, p. 87.

대한 견해”²¹⁾라고 함으로써 클라우제비츠 이론에 있어서 이중성의 문제를 중요시 하였다.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이중성은 ‘공격과 방어’, ‘섬멸전과 소모전’, ‘전략과 전술’, ‘목적과 수단’, ‘정신과 물질’,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제’, ‘절대전쟁과 현실전쟁’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²²⁾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내용인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이중성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나. 전쟁의 이중성과 삼위일체

전쟁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삼위일체의 상태가 되는가? 클라우제비츠는 이 문제를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의 본질로부터 파악하고 있다. 상호작용에는 양극성이 존재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현상에서 작용하는 현상을 “양극성의 원칙”이라고 지칭하였다.

전쟁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최초의 정의는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폭력행위”²³⁾이다. 여기에서 전쟁 그 자체는 폭력행위로 규정되며, 전쟁의 즉각적인 목표로서 적 저항력의 핵심인 무장해제를 통한 적 저항의지의 분쇄, 전쟁목적으로서 적의 타도를 통한 승자의 일방적 평화이다. 따라서 전쟁의 최초개념이 현실전쟁으로 전환되기 전에 그 본래적 기원과 목적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대립되는 양자간의 폭력행위는 제1단계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지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전쟁이 개인의 私的 결투가 아닌 국가간의 대결이므로 서로를 의식하고, 손익을 계산함으로써 제2단계의 상호견제의 양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는 여전히 양국의 정치 지도층

21)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박두복·김영로 共譯.
「군인과 국가」(서울: 탐구당, 1990), p. 78.

22) Raymond Aron, *Clausewitz: Philosopher of War*, pp. 89~94.

23) Karl Von Clausewitz, 앞의 책, p. 75.

과 국민들에게 적대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내부적인 마찰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 호소하고자 하는 초기의 의도에 따라 전쟁 노력과 폭력확대의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폭력 정도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²⁴⁾

3단계에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전쟁수행 노력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 상황의 평가, 아측의 능력 등의 정보판단을 하게 되는데 通常 정보의 결여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어 자신과 상대를 과소,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폭력의 정도가 완화되고, 전쟁의 지속기간도 단축된다. 그리고 제4 단계의 정책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결국 클라우제비츠가 최초로 정의한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기 위한 폭력행위”로서의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²⁵⁾이라는 현실적 전쟁이 되는 것이다.

전쟁의 이중성이 삼위일체로 변화하는 논리를 종합해 보면 우선 두 결투자 사이의 힘의 맥락에서 국가간의 전쟁을 논의하게 될 때 시간과 공간,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즉, 결투자를 국가로 대체하면서 국가는 영토, 자원, 동맹과 같은 힘과 수단을 갖게 된다. 또한 전쟁은 공간 속에서 전개되고, 시간이 걸린다. 전쟁은 국가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승패간에 결정적인 성격이 줄어들며, 전쟁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을 고려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실전쟁의 확률로 옮겨가고 정책개념이 도입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의 이중성에서 전장에 직접 참가하는 군대의 불확실성 요소를 더하면 삼위일체적 개념이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전쟁은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배되지만, 이 정치적 계산과 함께 국민의 원시적 증오심과 적개심, 무한적 폭력이 군대와 전장의 불확실성에 의해 흐려지는 것이다.²⁶⁾

24) 류재갑·강진석, 앞의 책, p. 95.

25) Karl Von Clausewitz, 앞의 책, p. 86.

26) Raymond Aron, “클라우제비츠의 개념체계” 국방대학원 역, 「전쟁없는 자유란」, 국방대학원 참고서지(서울 : 국방대학원, 1984), p. 656.

3. 전략의 선택과 삼위일체

가. 전장의 국지적 삼위일체

전쟁의 성격이 위와 같이 이중성과 삼위일체적 요소를 갖게 된다면 전략은 어디에서 출발할 것이며,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클라우제비츠는 이에 대하여 정치적 상황에 의존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만일,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이유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략선택에 있어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전 당사국이 일방적인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국제환경이 강압적 평화를 허용하는 경우 완전한 섬멸의 결전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불안을 잉태하게 될 것이며, 보복의 악순환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 평화의 길을 멀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우제비츠는 실전전략으로서 전쟁유형의 전환을 결정하는 상황환경으로서 전장의 국지적인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무력수단, 둘째는 힘의 상관관계, 셋째는 정치적 목표이다. 이러한 전장의 국지적 삼 요소의 평형상태에서 전략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즉, 추상적인 이론의 차원에서는 군대의 전투행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세 가지 국지적 전장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⁷⁾ 그렇다면 전쟁의 일반적 삼위일체와 전략은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되는가?

나. 전략의 선택

일반적으로 전쟁목표의 제한이나 수정은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이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가지 환경에 의존한다. 하나는 객관적 환경으로서 전력수준의 부족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대담성과 결의의 부족이다.²⁸⁾

27) 류재갑·강진석, 앞의 책 p. 110.

28) Raymond Aron. *Clausewitz : Philosopher of War*. 앞의 책. pp. 81~87.

물리적인 힘만으로만 따진다면 약자의 강자에 대한 투쟁은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프레드릭(Fredrich The Great II)처럼 전쟁수단의 부족을 전쟁목표 제한의 주된 이유로 삼을 수도 있고, 아롱처럼 객관적 힘(전력)과 주관적 힘(의지)의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쟁목표를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본질적인 힘은 군사적 동기와 정치적 이유 및 상황에 의존한다. 이점에서 클라우제비츠는 객관적 정치상황, 교전자의 객관적 힘, 교전자의 의지와 의도 등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전쟁의 일반적 삼위일체(인적 요소, 우연성과 개연성, 지적 요소)에서 정부의 지적 요소가 추상적 수준의 절대 전쟁을 현실전쟁으로 전환시키는 최종적 고려사항이었던 것처럼, 무력수단, 힘의 관계, 정치적 목표라는 전장의 국지적 삼위일체에 대한 최종의 고려요소는 정치적 이유와 상황이 된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중성의 특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이중적 특성 때문에 전략의 선택이 어느쪽으로도 치우칠 수도 없고, 양극단 사이에서 타협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와 같이 전략의 중간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작용이 삼위일체의 역할이다.²⁹⁾

따라서 전략의 대상인 전쟁은 국가적 차원(전쟁전체)이나 군사적 차원(전장의 국지적 차원)에 있어서 모두 이중성 또는 이율배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성을 해결하는 지혜가 바로 삼위일체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략을 구상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전쟁의 이중성과 삼위일체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전쟁의 기본 특징으로부터 전략을 출발시키는 논리는 모택동에 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는 “중국 혁명전쟁의 특징에 따라 중국 혁명전쟁의 기본법칙을 발견하고, 이 기본법칙에 따라 전쟁을 지도할 수 있다. 기본법칙을

29) 류재갑·강진석, 앞의 책 p. 111.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중국 혁명전쟁을 지도할 수도 없고, 홍군을 승리로 이끌 수도 없다.”³⁰⁾라는 주장을 하였다.

만약 물리적인 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전략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물리적 힘이 강한 자에게는 이론이 불필요하거나 혹시 필요하다더라도 그 가치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의 이론은 약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약자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전쟁의 최고 지도자나 지휘관의 차원에서 볼 때 만일 승리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가 획득되고 그 힘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달성에 필요한 승리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념적 수준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현실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정치적 목적이 없고 자신을 제한하는 정치적 상황이 없다면 이론상 소극적으로 수행되는 제한된 목표를 갖는 전쟁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쟁은 적의 굴복을 통한 자신의 행동자유의 극대화(영향력)를 지향하는 군사적 목표와 연계되어 결정된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완전한 전쟁보다 완전형에서 벗어나는 전쟁이 더 많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가공할 파괴적 전쟁상황에서는 더욱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분별지의 균형적 전략 (Strategy of Prudence)’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적 흐름은 일원적 개념화에서 출발하여 이중적 개념으로 발전되고, 다시 삼위일체적 정의로 종결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 관심은 국민과 국가, 정치가, 군대간에 내재하는 갈등과 이중성을 통합 조정하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모택동의 표현을 인용하면 “전쟁은 全國人民의 動員(정부와 국민)과 분리될 수 없고, 軍民一致(군대와 국민)와 분리될 수 없으며, 官兵一致(정부와 군대)와 분리될 수 없다.”³¹⁾ 그렇다면 이와 같

30) 모택동, “중국 혁명전쟁의 전략문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앞의 책, p. 87.

31) 모택동, “지구전에 관하여 논함.” 위의 책, p. 216.

은 삼위일체 이론을 전쟁사례에 적용하여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Ⅲ. 삼위일체 전쟁이론을 적용한 전쟁사례 비교

1. 월남전쟁

가. 인적 요소 : 국민의 열정과 지지

미국은 한국전쟁에 이어 월남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쟁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예비조치로서 선전포고라는 형식을 밟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국민적 지지기반이 결여된 채 행정부만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쟁개입 초기와 미군의 행동이 순조로운 동안에는 의회와 여론의 지지를 부분적으로 받았으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전쟁수행은 대통령의 권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월남전쟁은 Johnson's War, Nixon's War, The Army's War였을 뿐 미국의 전쟁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³²⁾

한편 존슨 대통령은 폭력의 수준을 최고 수준까지 확대 행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적에게 과시하여 압도할 필요가 있었으나, 전쟁확대를 외치면서도 군사력의 동원을 최저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이율배반적 개념에 따라 戰場에 역효과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실되었고, 중국에는 극렬한 반전운동까지 야기되었다.³³⁾

32) Harry G. Summers, Jr., "Clausewitz and Strategy Today", *Naval War College Review*, March - April 1983(Newport R.I. : Naval War College, 1983), P. 40.

33) 윤석재,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전쟁지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서울 : 국방대학원, 1992), P. 33.

반전여론은 전쟁의 도덕적, 법률적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미 의회도 '통킹만 결의안'³⁴⁾을 취소시킴에 따라 미 행정부는 미군의 철수와 전쟁의 월남화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었다.

동원에 있어서도 소규모 제한 동원 이외에 어떠한 동원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월남전쟁에서 미국은 지상군 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존슨행정부의 불공평한 징집정책은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기보다 오히려 반전여론을 부채질하게 되었다. 결국 선전포고 없이 개입한 월남전쟁에서 미국 행정부는 원초적인 취약점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전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³⁵⁾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구하고 미국 국민과 미군 사이의 근본적인 마찰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없었던 미국의 월남전쟁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의 하나는 대학생들에게 징집연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었다. 학생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의 발표로 월남전쟁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됨으로써, 전쟁에 나가지 않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학생들도 떳떳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 입영연기정책은 학교내 반전운동세력을 도와준 격이 되고 말았다.³⁶⁾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예비군 소집도 하지 않았으며, 대학생 입영도 연기시켰다는 존슨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34) 김영흠, *American Frontier Activities in Asia*. 박무성·이형대 역, 「미국의 아시아 외교 100년사」(서울 : 신구문화사, 1988), p. 292 : 1968년 8월 4일 월맹군 어뢰정이 미 구축함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서 미국 의회는 '미국에 대한 어떠한 무장공격도 격퇴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결의안(일명 통킹만 결의안)을 가결시켰음.

35) William V. O'Brien,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 War*, 국방대학원 역, 「전쟁의 정당성과 제한전쟁」(서울 : 국방대학원, 1987), pp. 384~386.

36)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tnam War*(New York : Dell, 1982), p. 68.

않았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결과적으로 월남전쟁에 대한 국민의 열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열이 식은 전쟁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국민의 반전여론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죽음과 파괴에 대한 전장의 생생한 현실이 TV에 방영됨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혐오감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머스 대령은 “남북전쟁시 게티스버그의 참상이나, 제2차 세계대전시의 노르망디 해안투보, 아르덴느와 타라와의 격전장면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면 그 전쟁은 모두 조기에 종결되어 미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것이며, 세계는 파시스트 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³⁷⁾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분노와 증오심, 적개심이 작용하는 실제전쟁의 인적 요소를 무시하고, 이론상의 전쟁인 제한전쟁으로만 취급한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거의 순수한 정치적 전쟁이라고 간주되는 제한전쟁으로서 미국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가? 전쟁의 정치적 요소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해 보기로 한다. 제Ⅱ장의 이론에서는 전장의 우연과 개연성의 요소를 두번째로 기술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논리의 편의상 정치적 요소를 먼저 논의하기로 한다.

나. 지적 요소 :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수단

월남전쟁에서 미국정부의 정치적 통제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었다. 워싱턴의 관료들은 군 지휘관들이 결정하여 수행해야 할 사항까지도 간섭하는 과도한 통제를 가하여 현지의 군사작전에 혼란을 초래하고 지장을 주었다. 1964년 5월부터 실시된 라오스 回廊에 대한 정찰활동도 워싱턴의 엄격한 통제하에 정찰횟수를 주 5회로 제한하였고, 탐지된 군사목표에 대한 공격도 불허하여 단지 적의 공격이 개시된 경우에만 응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은

37) Harry G. Summers, Jr., "Clausewitz and Strategy Today", 앞의 글, p. 43.

駐越 美軍司令部(MACV :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의 계속적인 건의에 의해 1965년에 겨우 해제되었다.

월맹에 대한 北爆도 폭격지역, 표적, 출격횟수 등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는데, 특히 하노이, 하이퐁, 中·越國境地帶에는 폭격제한구역, 폭격금지구역을 스스로 설정하여 미군의 군사행동을 제한하였다. 만일, 통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문책하였다. 승인하지 않은 표적에 대하여 폭격명령을 하달한 이유로 제7공군사령관이었던 라벨르(Lavelle) 대장을 중장으로 강등시켜 전역시켰으며, 하이퐁港 공격시 소련선박을 공격한 책임을 물어 브루튼 대령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³⁸⁾

한편, 전투부대원들은 적의 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 대사의 건의에 의해 워싱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방어지역 50마일 이내지역에서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월맹과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내의 적에 대한 지상공격 제한, 북폭 중단, 명절휴전 등 군사적 견지에서 보면 이적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이 정치적 이유에 따라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월맹군과 베트남군의 성역내에서 재편성과 정비가 항상 가능하였고, 북폭중단 기간이나 명절휴전기간중에 그들은 마음놓고 병력을 침투시키고 재보급을 할 수 있었다.³⁹⁾

주월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어랜드(Westmoreland) 장군은 1968년 구정공세에서 군사적 패배를 자초하여 총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월맹군에 대하여 북폭강화, 호지명 통로 차단작전,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성역공격, DMZ 북방의 월맹군기지 공격 등의 강력한 공세작전으로 월맹의 전쟁의지를 말살하고자 주장하였다. 군사적 시각에서 요구한 이 주장은 월맹과의 협상을 기대하는 정치관료들에 의해서 거절되었고, 북위 19도선 이북에 대한 북폭중지와 월맹에 대한 협상요청이라는 정치적 조치가 뒤따랐다.

38) 류제현, 「월남전쟁」 (서울 : 한원출판사, 1992), p. 469.

39) William V. O'Brien, 앞의 책, p. 368.

또 한 가지는 목표에 대한 초점을 상실한 것이었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은 월남전쟁 기간중 단 한번도 분명하게 천명된 것이 없었다. 또한 군의 교범상에서 목표에 관한 전략적 정의와 전술적 정의는 크게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전략과 정치목표간의 분명한 관계가 사라졌으며, 군사적 목표, 전쟁에 필요한 작전규모의 결정이 모호하게 되었다. 미국은 목표에 대한 초점을 상실함에 따라 전쟁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게 되었고, 미국의 오류는 더욱 심화되었다.⁴⁰⁾

결국 미국은 월남전쟁을 엄격한 제한전쟁의 논리로 인식하고 전장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군사적 요인을 무시하고 과도한 정치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군사작전에 대한 논리와 효과를 감소시킨 것이다. 삼위일체의 인적 요소에 의한 열정은 부족하고, 이성적 요소인 정부의 정치적 통제는 이성을 초과하는 극단으로 흐름에 따라 삼위일체의 균형상태는 붕괴된 것이다. 이제 군대의 요소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우연성과 개연성 : 지휘관과 군대에 대한 전장환경의 불확실성 요소

지휘관과 군대의 불확실성과 마찰요인에 관하여 월남전쟁을 보았을 때, 미국은 우선 소련과의 핵전쟁 위협성과 중공과의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다. 1950년대 핵무기 만능의 전략적 사고와 대량보복에 의한 핵전쟁의 공포는 미국으로 하여금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전쟁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래식 군대 특히 육군의 존재 이유는 크게 위협받았고, 제한전쟁 수행을 위한 해군이나 해병대를 제외한 육군은 본토방위를 위한 방위군으로 전환하라는 제안까지 대두되었다.⁴¹⁾

또한 중공이 월남전쟁에 개입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은 소련과의

40)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tnam War*, 앞의 책, p. 135.

41) 위의 책, p. 89.

핵전쟁, 중공과의 재래식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군사전략의 사고가 거의 마비된 것이다.

군대의 마찰요인을 가중시킨 또 한 가지의 요인은 게릴라전에 대한 교리의 문제였다. 미군은 유연반응전략으로 재래식 전쟁에서의 위치를 찾는 것과 동시에 게릴라전이라는 형태의 전쟁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군의 모든 관심은 대게릴라전에 집중되었고, 결국 미국 군사력의 근본성격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실패를 초래하였다.⁴²⁾

즉, 미국의 관심은 전쟁의 근원지인 월맹에 있지 않고, 외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남쪽의 게릴라전에 집중되었으며, 대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도 이것이 전술일뿐이지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월맹에게 군사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월맹은 미군의 전술적 공세를 베트남으로 대응케 하여 미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면서, 스스로의 전력을 전략적 목표에 여유 있게 지향시킬 수 있었다.⁴³⁾

군사작전지휘체제의 혼란성 역시 불확실성을 더한 요인중의 하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군의 유럽방면 전략사령부는 런던에 위치하고 있었고, 전쟁의 진전에 따라 전방지역으로 옮겨갔으며,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략사령부는 일본의 도쿄에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전쟁을 지휘한 미군의 전략사령부는 호놀룰루에 있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볼 때 월남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사령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주월미군에 대한 전략지시중에 일부는 워싱턴에서, 일부는 호놀룰루의 태평양사령부에서 왔으며, 이에 대한 협조된 통일성도 없었다. 공중작전은 태평양사령관, 지상작전은 駐越 美軍事支援司令官의 책임하에 있었으며, 제반 활동의 협조된 작전이 수행되기 어려웠다.⁴⁴⁾

42) 위의 책, p. 103.

43) 윤석재, 앞의 논문, P. 37.

44) John M. Collins, *Grand Strategy*, 국방대학원 역, 「대전략론」, 안보총서(서울 : 국방대학원, 1979), p. 464.

2. 걸프 전쟁

가. 인적 요소 : 국민의 열정과 지지

월남전쟁에서 국민의 지지 획득에 실패한 미국은 1984년 11월 국방장관이었던 와인버거(Casper W. Weinberger)에 의해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클라우제비츠 주장을 도입하였다. 당시 기자클럽에서 행한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국민지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이 전투부대를 해외로 파병하기 전에 국민의 지지와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성적인 확신인 있어야 한다." 걸프전쟁에서 미국 정부는 와인버거의 충고를 따랐고, 걸프지역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월남전쟁 당시 미 국무부 공보보좌관이었던 필 골딩(Phil Goulding)은 "과거 나의 임기 동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 국민에게 연방정부에 의한 공동프로그램의 가치있는 이름으로 그토록 의미있게 조직화된 노력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였다.⁴⁵⁾

부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걸프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1990년 11월 26일자 뉴스위크를 통해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고 지지를 구했다. "1990년 8월 이래 미국의 목적은 첫째, 조건없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는 것. 둘째, 적법한 쿠웨이트 정부의 회복. 셋째, 트루먼 시대 이래 미국 국가이익에 중요한 걸프만의 안보와 안정. 넷째, 외국 거주 미국인의 보호이다."⁴⁶⁾ 이러한 요청은 뛰어난 효과를 발휘했다. 주 방위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를 동원하고 전개하기 위한 부시의 결정은 전쟁의 효과면에서 전국적인 공동체 형성을 가능케 했고, 민군간의 긴밀한 관련을 맺게 하였다.

45)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II :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lf War*, 앞의 책, p. 11.

46) *Newsweek*, 1990년 11월 26일자, 35면.

그리고 1991년 1월 7일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1991년 1월 12일 의회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결정했다. 월남전쟁을 통해 미국의 전쟁수행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미국 국민의 지지는 전략적 공식에 다시 포함되었다. 대이라크 공습이 시작된 1991년 1월 18일 ABC 방송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3%가 전쟁을 지지했고 71%가 반전운동가들을 비난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워싱턴포스트와 ABC의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인기는 90%에 이르렀다.⁴⁷⁾

이러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1991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UN 결의안 678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수단을 지지하는 요구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주재했다. 이때 법무부 차관인 윌리엄 베르(William P. Berr)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전쟁의 권한은 행정부와 의회가 나누어야 한다. 헌법은 분배된 것을 의미하며, 우리에게서 분산된 권한은 행정부와 의회가 동의할 때 강력해진다. 현 위기는 한국전쟁 때 트루먼이 의회의 결정없이 행동한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결국 이 문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3일간의 토론을 거친 1991년 1월 12일 의회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결정’ 요구안을 승인했다. 표결결과 상원에서 52 : 47, 하원에서 250 : 180으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겨우 통과되었지만, 1월 18일 막상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상원 96 : 6, 하원 399 : 6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⁴⁸⁾

47)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II :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lf War*, 앞의 책, p. 19.

48) 위의 책, p. 40.

나. 지적 요소 : 정치적 목적과 수단

걸프전쟁을 수행한 미국의 전쟁목적은 UN 결의에 따라 쿠웨이트를 원상복귀하고 쿠웨이트내에서 이라크군을 철수시킴으로써 걸프지역내의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명분 이외에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체제를 고려하고 있었다. 미·소 양극체제가 이완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힘의 공백이 초래되어 지역적 분쟁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발발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화학전 능력을 포함한 거대한 이라크 군사능력과 호전적 모험주의는 지역안정 유지에 계속적으로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목적은 시간이 다소 걸릴지 모르지만 무력사용 이외의 방법, 즉 경제 및 정치외교적 봉쇄 등을 통해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봉쇄작전을 지속함으로써 후세인의 항복 내지 정권 붕괴를 유도할 수도 있고, 지역적 군비통제를 통하여 이라크의 핵, 화학능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위협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도 있었다.⁴⁹⁾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 목적이 신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중동지역의 안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라크의 군사력이 존재하는 한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간을 끌수록 국제적 지지와 미국내 여론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고, 아랍 및 이슬람권의 변화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기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 즉 무력사용을 택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국내·외적 지지기반이 유리하게 조성된 상황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쿠웨이트 해방은 물론이고, 중동평화에 지속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49) 차영구, "페르시아만 사태의 분석과 전망", 「수시연구보고서」(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0), p. 2.

이라크 군사력을 가장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전쟁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 통제와 군 지휘관의 작전지휘의 수준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월남전쟁에서의 과도한 통제로 인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수준에서 파워(Collin S. Powell) 합참의장의 군사적 조언을 들었으며, 군에게는 군사작전의 정치적 목적만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합참 역시 현지의 중부군사령관 슈와르츠코프(Norman H. Schwartzkopf)와의 전쟁지도, 협조의 수준을 잘 견지하여 군사목표의 수준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슈와르츠코프는 과도한 상부의 통제없이 현지의 사령부에서 명확한 목적을 자각하고, 충분한 군사수단과 권한을 동원하여 군사행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결프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사전략이 수용해야 될 정치적 고려사항은 민간인 및 다국적군의 피해 최소화, 군사행동의 충분한 명분축적, 아랍 민족주의 자극 최소화, 전쟁지역의 중동 이외 확대 방지, 다국적군의 결속 유지, 신속한 군사적 승리 등이었다.⁵⁰⁾

이러한 정치적 고려사항과 국가전략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전략목표는 군사적 승리를 통한 쿠웨이트의 회복과 정치적 협상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있었으며, 명확한 전쟁목적의 개념체계하에서 정부와 군의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임무를 분명히 자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군 지휘관들은 지속적이며 압도적인 군사 타격으로 이라크군의 전쟁수행 의지와 군사력의 약화를 달성하고, 단기속결전으로 전쟁종결을 추구할 수 있었다.⁵¹⁾ 실제로 이를 가능케 했던 순수한 군사적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의 전장요소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50) 박길승, “전략 및 작전수준에서 본 걸프전쟁 분석”, 「군사평론」 제293호.(진해 : 육군대학, 1991), p. 29.

51) 류재갑, “군사기술의 발전과 현대작전술의 변화”, 안보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책」(서울 : 국방대학원, 1991), p. 112.

다. 우연과 개연성 : 지휘관과 군대에 대한 전장의 불확실성 요소

결프전쟁에서 미군의 전장환경 요소는 월남전쟁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全軍의 노력과 준비에 따라 불확실성의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었다. 1973년 월남에서 철수한 이후 미군의 전략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아스타리타(Astarita) 그룹은 미국의 전쟁수행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삼위일체(Remarkable Trinity)를 재활성화하는 조직적 노력을 전개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아브람스(Abrams) 장군의 의도에서 시작된 이 노력은 그의 후임 웨이언드(Fred C. Weyand)에 이어졌다. 1974년 이 그룹의 연구결과 보고서는 핵전략, 분란억제전략 등과 같은 환상 대신에 상식적인 재래식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정글 대신에 공중과 해양통제, 중부유럽의 평원과 같은 전통적인 전장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1981년 3월 후일 합참의장이 된 베시(John Vessy, Jr.) 장군은 이 보고서에 대해 “월남전 이후 군에 대해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하였다.⁵²⁾ 이와 같은 전통적 군의 임무,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각군에서 구체화되었다.

해군에서는 1972년 8월 해군대학 총장이 된 터너 제독(Stansfield Turner)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취임 후 먼저 투키디데스(Tucydides)와 마한(A.T. Mahan), 콜베트(Julian S. Corbett)와 같은 전통적 해군전략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新譯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는 해군대학 전략학처장 필립 크롤(Philip Crowl) 교수와 공군교환교수였던 맥키삭(David Macisaac) 중령의 노력이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군은 1980년대 해양전략을 발전시켰다. 해병대 역시 관심을 정글로부터 바다로 돌리고, 수륙양용의 상륙작전 임무로 복귀하여 상륙군 부대의 개선과 상륙전 교리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해군과 해병대의 노력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군 자산으로서 항모전투단, 함대해병대상륙군의 가치를 인식케 하였고, 해상

52)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II :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lf War*, 앞의 책, pp. 75~76.

사전 배치함(MPS : Maritime Prepositioning Ships), 해병공지기동부대와 같은 기동성 있는 신속 대응전력을 발전시켰다.⁵³⁾

공군 역시 1984년 3월 16일판 미 공군교범 1-1에 미 공군의 첫번째 임무를 '적의 군사, 정치, 경제력 기반을 지향한 공격을 통하여 적의 전쟁지속능력 또는 전쟁의지를 파괴, 무력화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걸프전쟁에서 미 공군은 이라크에 대한 항공작전에서 그 기회를 얻었다.

육군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첫째는 클라우제비츠 이론의 재발견 및 교육과정 반영인데, 해군대학에서 전쟁론 강의 개설에 기여한 공군교관교수 맥키삭(David Macisaac) 중령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와 피터 파레트(Peter Paret)가 번역한 전쟁론을 육군대학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둘째는 육군대학 군사전략계획 및 작전학처장 런데이(Donald E. Lunday) 대령의 지도하에 전역계획이 핵심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⁵⁴⁾

서머즈(Harry G. Summers) 대령의 월남전 분석(*On Strategy :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tnam War*)은 육·해·공군대학과 국방대학원의 교재로 채택되었으며, 미 육군 교범 100-1에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현대전의 범위와 장소는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표에 의해 정의되고 제한된다. 군사작전, 정치적 판단, 그리고 국가의지와 상호작용들은 성취 가능한 전쟁목표에 대해 심화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한정하며 전쟁의 지속과 종결을 위한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⁵⁵⁾고 강조했다.

공군과 육군의 공지전투개념은 전장차단, 근접항공지원, 전장내 공수, 특수작전, 야간전투, J-STARS(합동감시 및 표적획득 레이더시스템), 공지전투작전 수행을 위한 필수프로그램 등 공지전투단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공지 전투개념은 걸프전쟁의 전장에서 실현되었다.⁵⁶⁾

53) 위의 책, pp. 78~82.

54) 위의 책, p. 127.

55) 위의 책, p. 134.

56) 위의 책, p. 149.

월남전쟁의 정글 속에서 게릴라전에 마취되어 전장의 안개를 더욱 짙게 했던 미군은 20여년간의 반성과 발전의 노력으로 재래식 전쟁 수행능력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걸프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미군에 대한 전장의 불확실성은 최소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3. 평 가

삼위일체론의 시각에서 본 미국의 월남전쟁과 걸프전쟁은 매우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첫번째 요소인 인적요소(국민의 열정과 지지)에 있어서 월남전쟁은 전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전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기반이 되는 선전포고(혹은 이에 준하는 의회의 결의)를 결여한 때문이었다. 또한 참혹한 전장의 실상이 TV 영상으로 국내에 방송되어 국민의 혐오감을 초래하였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국민의 열정이 부족한 전쟁이었다.

반면에 걸프전쟁에서는 의회와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결국 의회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하에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정부의 지적 요소에 있어서 월남전쟁은 정치적 목적의 모호성과 과도한 정치적 통제가 전장의 군대를 제약하고 전쟁 전체를 흐트러진 전쟁이었다. 걸프전쟁은 명확한 목적의 제시, 적절한 통제수준의 유지로 전장에 있는 군의 힘을 최대한 높여준 전쟁이었다.

군대의 전장요소에 있어서 월남전쟁은 핵전쟁과 대규모 재래식 전쟁에 대한 두려움, 게릴라전에 대한 관심의 집중, 전략과 전술의 혼돈 등으로 전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다. 반면에 걸프전쟁에서 미군은 과거 20여년 동안 준비해온 재래식 전쟁에 대한 전략, 작전교리, 전술의 개발, 부대의 편성 등으로 전장의 불확실성의 성격이 크게 감소되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월남전쟁에서 미국은 인적 요소의 열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정부의 통제요소가 과다하며, 전장의 불확실성까지 증가됨으로써 전쟁의 삼위일체 요소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걸프전쟁에서는 삼위일체가 기묘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IV. 삼위일체론의 현대 전략적 의미

1. 전쟁의 변화와 삼위일체론

가. 삼위일체적 전쟁

전쟁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에 대응하여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 된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들로부터 동원되는 군대가 전쟁의 도구가 되어 왔다. 군대의 동원양상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리해 왔지만 그 기본특성은 변화하지 않았다. 군대는 국가형태가 군주국이건, 공화국이건 帝國이건간에 그 국가의 권력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다.⁵⁷⁾

「나폴레옹전쟁 당시 스페인의 유격대가 나폴레옹군대에게 대항하여 봉기하고 투쟁을 시작했을 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빨치산 부대와 독일의 의용병단도 그 사례를 따라 조국을 위해 투쟁하고 성공을 거두었다. 정규군 뿐아니라 국민대중들의 봉기도 국가의 전쟁을 위해 유용하고 애국적이며 때로는 영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진정 누가 전쟁을 수행할 자격이 있으며 그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견일치가 없었다.」

나폴레옹전쟁 이전까지 전쟁에서 삼위일체적 요소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루이 15세, 프레드릭 2세, 마이라 테레지아 같은 절대군주가 시민들에게 요구한 것은 유순한 복종뿐이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방을 점령하고 있는 정부가 어느쪽이던간에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그 요구가 충족되면 증오심이나 적대감정, 즐거움이나 감동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고 그저 비켜서 있어주기만 바랐다.⁵⁸⁾

57) Martin V. Creveld. 「전쟁의 역사적 변화」 국방대학원 역 참고서지(서울 : 국방대학원, 1990), p 55.

58) 위의 책, p. 57.

이때는 단순히 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군대의 전투결과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양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전쟁에는 국민의 열정이 더해지게 되었다. 1793년 프랑스 의회가 모든 시민들의 국가적 봉사를 위한 징집조치를 취하게 된 후 다른 나라들도 이를 흉내내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 등이 그 물결에 편승하여 모든 국민이 애국적 열망을 적절히 보여주고 전쟁에 대한 공헌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국민의 경비지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직업적 용병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정부와 군대, 국민 모두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쟁의 삼위일체적 현상이 분명하게 되었다.

19세기에 국가는 군사력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국가의 위치는 국제법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수행자격은 군대(국민들로부터 징집된)에게만 인정되었다. 19세기 이후 국제법상으로 전쟁은 국가간에 한하여 전투수행은 군대와 군대간에 한하여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즉, 삼위일체적 전쟁이론의 개념하에서 전쟁은 국가와 군대, 국민의 구분이 명확한 가운데 인식되었으며, 한편으로 각가의 요소는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통합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삼위일체 전쟁이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⁵⁹⁾ 20세기 전반까지 전쟁의 삼위일체적 특징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나. 비삼위일체적 전쟁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인류는 그동안 인식해온 삼위일체적 전쟁구조의 부분적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 당시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쟁의 모습은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전투원을 획득하고 민간인들

59) 위의 책, p. 60.

을 전투에 개입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전투원과 비전투원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존재하였다.

이 당시 전쟁을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역할은 전투원 충원의 원천으로서 전쟁의 선포와 노력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제공하고 정부는 적과 싸워야 하는 이유와 전쟁의 비용·효과를 계산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는 계산된 적과의 전쟁에서 대규모 복잡한 군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전쟁의 선천적 특성인 불확실성과 마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진 측과 그렇지 않은 상대와의 대결 양상은 위험을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원시적 분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부의 이성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前者의 경우 국민들은 정부에 의한 전쟁을 지지하지 않고 단순히 신속한 終戰만을 원하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전쟁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이성적 통제의 부재로 인해 무제한적 폭력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⁶⁰⁾ 1990년대의 세계분쟁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인종, 종교분쟁은 후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될 수 있다.

전쟁에서 전쟁의 어느 당사자가 국가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 전쟁의 이유와 동기는 매우 약화되거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종, 종교분쟁에서 각 단체들은 대표성을 가진 단일의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갖지 않는다.⁶¹⁾

특히 현대 국지전쟁의 전쟁 당사자는 반드시 국가만이 아니다. 즉, 식민지나 그 반란단체도 전쟁 당사자가 되고 한국전쟁에서와 같이 UN도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전쟁 당사자가의 정치적 성격은 국가를 주체로 하지만 쌍방이 국가

60) John T. Hanley, "Implications of The Changing Nature of Conflict for the Submarine Force". *Naval War College Review*, Autumn 1993 (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93), p. 10.

61) 위의 글, p. 11.

로만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들⁶²⁾만의 투쟁이라고 하는 도식은 현대 국지전
쟁의 실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전쟁의 삼위일체적 특성이 이완된 원인의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타국과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전쟁윤리적인 기준을 크게 위반했고 이들에 대해 피침략국의 국
민들은 정부가 항복하고 군대가 항복했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⁶³⁾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주 적으로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적 전쟁개념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동안 제3세계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분출하였다. 그 대다수는 군대와 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스스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사로서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
하여 전쟁과 유사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었다. 삼위
일체 전쟁의 일반적 기준에서 볼 때 그러한 노력은 성공의 기회가 없었고 군사
적으로도 정규군의 편성, 경험, 중화기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군인들과 민간인 모두를 합법적 표적으로 삼아서 정부를 타격하고 주민
들을 폭력과 회유로 끌어들이어서 적에게 겁을 먹도록 하였다. 어떤든간에 이러한
비삼위일체적 전쟁방식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20세기 후반 지구상의 많
은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어 왔다.⁶⁴⁾

현대 군사환경에 포함되는 비삼위일체적 요소는 테러리즘, 평화유지작전, 불
법이민, 마약, 밀수, 도시폭동, 빈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대외적 전쟁에만 원시적 분노의 열정을 보
내지 않을 것이며, 협력안보, 위기관리, 평화유지 등 군의 평시 역할에 보다 많

62) 服部實, 「現代局地戰爭論」, 국방대학원 역 참고서지(서울 : 국방대학원, 1988), p 70.

63) Martin V. Crevelde, 「전쟁의 역사적 변화」, 앞의 책, p 81.

64) 위의 책, p. 83.

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⁶⁵⁾

위와 같은 비삼위일체적 요소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국가차원의 전쟁을 설명하는 삼위일체이론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국가간의 전쟁 가능성이 세계 각처에서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론은 여전히 유용한 영역을 갖고 있다.

2. 기술의 발달과 삼위일체론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의 각 요소는 인도유럽철학의 삼분법적 기능주의에 관련을 두고 있지만 현대의 상황은 국민대중(Commoners)에게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앞에서 이미 정부, 군대, 국민의 기능적 구분이 모호한 현대국지전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대중이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중 중요한 사실은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따라 경제적 인 부, 무기기술의 발달에 적용하는 데 열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⁶⁾

그런데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을 현대전쟁에 적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현대군사기술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삼위일체이론의 세 가지 요소는 본질적으로 비물질적인 것이다. 현대전쟁의 제반 측면에 대한 군사기술의 중요성에서 볼 때 클라우제비츠가 오늘날 살아 있다면 물질적인 기술의 영역을 네번째 차원으로 하여 네개의 요소를 가진 전쟁분석의 틀을 제시했을 것이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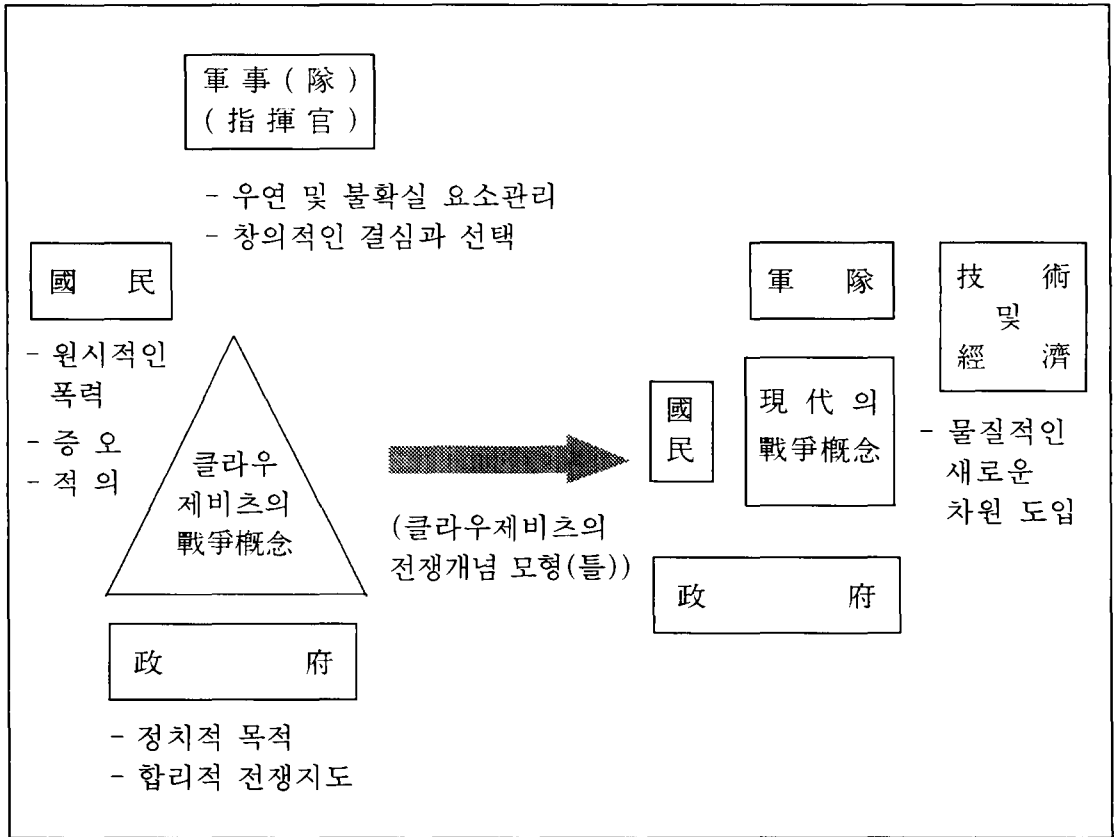
물질적인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시대에 살았던 클라우제비츠는 당연히 물질적인 군사환경을 비교적 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만일, 그가 50년 전(프랑스 혁명과 민족주의 확산,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집제도 확산 이전)에 전쟁론을

65) John T. Hanley, 앞의 글, P. 13.

66) John E. Tashjeon, 앞의 글, p. 58.

67) Michael I. Handel, "Clausewitz in the Age of Technology," *War, Strategy and Intelligence*(London : Frank Cass, 1989), p. 61.

〈그림 4-1〉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 전쟁개념의 수정



출처 : Michael I. Handel., "Clausewitz in the Age of Technology,"
War, Strategy and Intelligence(London : Frank Cass, 1989),
 p. 61.

썼다면 절대전쟁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지 않았을 것이며, 반대로 50년 내지 100년 후에 전쟁론을 썼다면 19세기에 확산된 산업기술혁명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는 급속하게 변하는 물질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전쟁론의 이론을 전개했을 것이며 전쟁의 경제적, 물질적 환경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 것이다.

만일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가 변화하지 않고 불변의 것이라고 할 때(물론 국지전쟁에서 다소 혼란을 겪고 있지만) 과학기술은 현대 및 미래전쟁의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요소가 되어야 한다. 즉, 전쟁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술적 변화는 그 본질 속에 추가할만한 것이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과학기술은 양적개념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질적차원을 가져왔으며, 힘의 승수역할을 함으로써 수의 열세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을 때 그는 아직 유럽의 다른 군대를 비교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군사적 천재에 의해 지휘되는 대규모의 부대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같지 않으며 군사기술의 혁신으로 소규모이지만 기술적으로 발전된 군대가 대규모의 군대에 대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⁶⁸⁾

그러나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에 대한 과학기술 및 기타 경제, 산업의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전쟁이론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라는 요소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피해야 한다. 그것은 기존의 삼위일체가 균형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군사이론가들은 각 요소들을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게릴라전에서 국민의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게릴라주의에 빠질 수 있고 반면에 게릴라전에서 국민의 요소를 무시할 경우에는 심각한 패배에 이르게 된다. 기술지향적 사회나 물질지향적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월남전쟁에서 미국은 기술을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한 적이 있었다. 삼위일체(혹은 기술과 함께 四位一體)의 진정한 개념은 각 요소간의 평형에 있는 것이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것이다.

68) 위의 책, pp. 62~63.

3. 삼위일체 이론의 비판적 검토

가. 삼위일체의 균형과 군사적 천재의 역할론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 이론에 있어서 첫번째 경향이 인간의 본질적 증오심과 열정을 반영하고 세번째의 경향이 인간의 이성적 자아통제의 능력을 반영한다면 두번째 경향은 군대에 관련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와 선택의 능력을 상징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두번째 '우연성(기회)과, 개연성(예측성)의 요소가 전쟁을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으로 만든다'⁶⁹⁾고 하면서 이와 같은 창조적 정신활동의 영역에서 군사적 천재가 개입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에서 군사적 천재는 마찰의 긴장요인을 극복하면서 대중 위에 표출되는 궁극적 해결자로서 이론과 현실의 역할을 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삼위일체의 세 가지 경향을 통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천재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이다. 군사적 천재는 법칙 위에 위치하고 업무수행의 기적적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부적인 예견의 능력을 발휘하며 정열과 훌륭한 지적 능력, 샘솟는 직관력을 겸비하고 모든 능력을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각 요소가 균형있게 정지되는 상태를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⁷⁰⁾

이러한 사고방식은 나폴레옹이라는 천재적 인물을 대입시킨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인간을 자유로운 행위자로 보고 자연세계로부터 객관적 지식이 나온다는 계몽주의 철학과 순수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피동적 역할을 반대하는 思考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모든 인간형상까지도 과학적 체계 안에서 확실성의 신념으로 공식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창조적 입지를 박탈하는데 대한 반대인 것이다.

69) Clausewitz, 앞의 책, p. 89.

70) 위의 책, pp. 100~103.

따라서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군사적 천재는 순수과학세계의 결정성과 완전한 개연성을 초월하는 慧眼(Coup d'oei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모든 제한을 거부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며 “진정으로 훌륭한 지휘관의 본질은 전쟁수행의 전반을 자신내에서 완전히 식별하는 혜안을 갖고 개별 사건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사건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자유를 성취하는 것이다.”⁷¹⁾

그러나 삼위일체의 각 요소간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두번째 요소인 우연성과 개연성의 요소에 내재하는 마찰을 오로지 군사적 천재에 의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면 전략과 전술, 교리와 같은 군사이론의 세계는 전쟁의 영역에서 입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즉, 삼위일체적 틀 속에서는 야전지휘관의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전략, 전술적 원칙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천재만이 모든 법칙 위에서 존재해야 하는 논리는 현실적 세계와 너무 괴리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완전한 천재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상정한 군사적 천재의 상징인 나폴레옹 조차도 휘하 장군들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지는 못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패망의 결과를 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군사적 천재의 완전형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다만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더욱 유능하게 하여 위에서 논한 천재적 수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는 있는 것이다. 결국 전쟁의 여러 경향간의 고유한 긴장을 해결하는 일이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활동에 의존한다면 지휘관의 창조적 정신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71) 위의 책, p. 578.

따라서 전략·전술과 같은 군사이론의 체계는 지휘관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하고 분별력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자아 학습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에서 천재의 역할을 재해석해 본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 지휘관으로 하여금 전쟁의 각 경향간에 존재하는 마찰요인을 간파하고 이를 균형있게 정지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도록 부단한 자기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노력은 전쟁현상에 대한 깊은 탐구와 사색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우리는 이러한 자기 노력의 과정에서 현대 군사교육, 특히 고급장교에 대한 교육의 방향이 사실의 전달보다 창조적 정신의 계발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삼위일체론과 변증법적 논리구조에 관하여

전쟁의 본질적 특성을 일원적 개념에서 이중적 구조, 다시 삼위일체론으로 발전시키는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체계는 형식적으로 변증법적 논리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Ⅱ장에서 논한 절대전쟁과 현실전쟁 이외에도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목적과 수단, 전략과 전술, 이론과 실제, 의지와 실천, 친구와 적, 집중과 분산, 공격과 방어 등 많은 분야에서 정·반 명제를 대립시키고 이를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정·반 명제들을 정의하고 비교하여 전쟁의 모든 요소들을 항구적인 상호작용의 상태로 연결시켜 주는 역동적 요인을 추적하였다.

헤겔은 정·반 명제의 합을 제시하였으나 클라우제비츠는 이 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삼위일체에 있어서 正(인적 요소), 反(지적 요소)에 대한 합은 없으며 다만 제3의 요소로서 우연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반 명제의 정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적 정지를 달성하는 해결적 존재로서 군사적 천재를 제시한 것은 정·반에 대한 합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 이론의 과정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선택한 변증법적 논리구조는 헤겔의 철학에서 아이디어를 빌었으나 대립되는 양자의 개념만 채용하고 전혀 다른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의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탈피한 창조적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다. 삼위일체적 측면에서 본 전쟁과 정치

과연 전쟁이 정치의 연속인가? 아니면 정치의 붕괴 혹은 단절인가?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전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삼위일체의 인적 요소로 인한 맹목적 충동 또는 집단심리는 절대 전쟁으로서 전쟁을 전쟁 그 자체로 만들게 하는 것인데 이같은 차원에서 전쟁은 티볼트(Edward A. Thibaul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의 붕괴와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⁷²⁾

그러나 전쟁을 정치의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작용하며 그것은 바로 지적 요소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적인 힘을 갖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전쟁을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는 전쟁으로 만들게 한다. 이러한 이성적 통제와 협력적 자세가 전쟁의 무제한적 확대를 방지하고 조화를 가능케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전쟁은 자의적인 것이 되어 버리며 전쟁 그 자체로서 정치와 분리되고 만다. 그러나 전쟁에서 상대방과의 상호관계로 인해 적의 의도, 동기를 추측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이성적 계산과 통제는 확률적인 우연성의 영역과 만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2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가상적 인간본질과 이성적 자제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론과 실체를 연결시키며 연결기능의 역할은 천재성에 의존한다.

72) Edward A. Thibault. "War as a Collapse of Policy : A Critical Evaluation of Clausewitz." *Naval War College Review* : May-June 1973(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73), pp. 42~55.

이렇게 볼 때 삼위일체 이론을 통해 클라우제비츠가 말하고자 했던 전쟁은 제 1의 경향으로서 인적 요소에 의한 절대전쟁이 아니고 전쟁의 이성적 자제를 강조했던 것이며 단지 그 이성적 자제를 제약하는 전장환경의 불확실성과 우연성을 추가했을 뿐이다. 따라서 티볼트가 전쟁을 정치의 붕괴라고 해석한 것은 삼위일체 요소 중에서 지나치게 첫번째 요소에 치우쳐서 무제한적 폭력의 가능성만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티볼트가 그 글을 썼던 1970년대 당시의 핵전쟁의 공포상황을 감안한다면 그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핵 억제제를 통한 이성적인 핵전쟁 방지가 추구되었다는 차원과 재래식 전쟁의 수준에서 볼 때 전쟁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과 그 통제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삼위일체 이론과 현대전략의 고려요소

이상에서 고찰한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도출되는 전략적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첫째, 전략가는 군사적 수단이 필요한 궁극적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기존의 군사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이익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러한 국가이익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어느 정도의 대가 특히 군사적 노력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 수립시 고려되는 네 가지 수준의 국가이익을 군사력 사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⁷³⁾

73) 미국의 국가이익은 생존의 이익(survival), 핵심적 이익(vital) 주요 이익(major), 지역적 이익(peripheral) 등으로 구분되며 그중에서 핵심적 이익은 군사력 사용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이익의 기준이 된다. Richmond M. Lloyd. "Framework for Force Planning." Naval War College eds., *Fundamentals of Force Planning* Vol. 1 (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90). p. 16.

정부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전쟁을 결정했다면 전략가는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략가는 군사력이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관건이 아니라는 점과 군사력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만 한다. 이것은 월남전쟁과 걸프전쟁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이성적 통제의 힘은 국민적 지지기반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가는 전략 수립시 국민적 지지기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민이 그 전쟁에 대하여 부도덕하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노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하워드는 이 문제를 전략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현대의 군사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대·최고의 장비를 갖춘 군대를 작전지역에 투입하고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군수지원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군수지원능력이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참여와 자발적인 지지라는 것이다.⁷⁴⁾ 여기에서 마이클 하워드는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 요소 중 국민의 열정을 사회적 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적 요소는 단순히 군수지원능력의 배경일 뿐 아니라 군대의 동원, 전쟁의 선포, 동맹의 획득 유지, 전장의 지휘관과 군대의 사기 등 전쟁의 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전장환경에서 대두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리 및 부대조직의 발전노력이 요구된다. 교리는 전투수행의 방법(How to Fight)이다. 즉, 군

74) Michael Howard, "Forgotten Dimensions of Strategy." 최병갑 외 共譯
「現代 軍事戰略大綱」(서울 : 을지서적, 1988), p. 33.

사행동에 대한 일정한 틀을 형성해 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신념체계로서 전장에 투입되는 지휘관과 전투원들에게 전투준비 및 행동의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미 육군의 공지작전교리는 비선형전장에서의 기동전 수행에 적합한 지침을 창출하였고 걸프전쟁에서의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미 해군의 경우 아직까지도 교리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군 역시 함대의 운용 등 해전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발전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⁷⁵⁾

한국 육군의 경우 입체고속기동전, 도로건부 위주 중심방어, 공세적 후방작전 등과 같은 한반도 지역내 지상전 기본 전투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 해군에게는 장차 기동함대와 해역함대의 운용, 함대수준의 상호지원, 해상전술항공, 지휘통제구조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교리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교리발전에 있어서 전장의 본질적 특성인 불확실성, 유동성 등을 무시하는 보편적 진리의 강조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특히 지휘관의 생각을 얽매이게 하는 교조적이고 융통성 없는 태도를 조장할 경우, 교리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기회포착이 중요한 전장에서 지휘관과 그 부대의 수족을 잡아낼 수 있다. 따라서 지휘관이 그 부대의 전투준비와 행동통일을 위해서 교리를 활용하지만 실제 전투에 있어서 창조성과 융통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해안을 가진 지휘관의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에 의해서 전쟁이 이성적으로 결정되었고, 국민에 의해서 열정적인 지지를 받은 전쟁에 대해서 평소 교리발전과 전투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전장에서 성공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지휘관이 필요하다. 그 지휘관은 실제전쟁에 임해서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으

75) Stephen Schumit, "A Calls for Official Naval Doctrine," *Naval War College Review*, Winter 1993(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93), p. 51.

며, 다양한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가진 전장환경을 꿰뚫어 보고, 자신에게 배당된 병력, 화력, 기동력 등 군사적 자산을 활용하여 빛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을 완전하게 갖춘 군사적 천재의 현실적 존재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준재의 수준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해안을 가진 지휘관이 육성되었다면 그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여된 임무에 대한 과업수행이 창조적일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 현대 군사환경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지휘·통제체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정보처리에 의존하는 지휘·통제체제의 발전은 지휘판단과 통제의 권한을 상급지휘관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하급제대 지휘관의 자율적 지휘범위가 축소되고 부대조직 전체의 경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지휘통제체제의 발전은 지휘관의 창조적 정신활동을 위한 보조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클라우제비츠의 시대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차원에서 볼 때 전쟁은 “다른 자원의 이전 과정과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수행된다”⁷⁶⁾고 극단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원의 경제적 관리 및 고도의 무기기술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전에서 기술은 핵무기 이외의 재래식 무기에서도 워낙 혁신적인 발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술적 요소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월남에서 실패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전했듯이 기술적 요소가 단순히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분명히 기술적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으나 기존의 국민적(사회적) 요소, 정치적 요소, 전장의 우연성 등과 연계하는 균형상태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76) James Fallows, *National Defense*(New York : Vintage Books, 1982), p. 34.

V. 결 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에 대하여 ‘기묘한 삼위일체 (Remarkabel trinity)’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전쟁현상을 본질적으로 설명하고자 당시 독일의 사상적 풍토를 기반으로 변증법적 논리구조를 부분 채용하고, 인도유럽철학의 삼분기능주의를 토대로 하여 탄생시킨 것이다.

그 내용의 첫번째는 요소는 국민에 의한 원시적 증오와 적개심으로 절대전쟁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두번째 요소는 전장의 우연과 개연성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이다. 세번째 요소는 정부의 이성적 통제로서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의 관계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균형있는 정지상태에서 전략이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군사력이 사용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테러리즘, 평화유지, 불법이민과 밀입국, 마약, 밀수, 도시폭동과 같이 삼위일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쟁현상도 많이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사위일체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본질적 현상을 설명하는 클라우제비츠의 고전적인 삼위일체 이론은 현대 전략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수행한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식 전쟁이었던 월남전쟁과 걸프전쟁의 사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이론의 현대 전략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전쟁이라는 오랜 과거의 전쟁으로부터 도출된 삼위일체 이론은 많은 표면적 조건이 변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것이다.

삼위일체 이론의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이론적 의미는 첫째로 삼위일체 이론이 불변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균형적 조화를 강조하는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쟁의 삼위일체 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승리의 가능성이 한층 더 증대된다는 것이다.

전략·정책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에 대한 조화와 분별은 다시 한번 중요하다. 둘째,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국민의 지지 획득이 중요하며, 국민의 지지는 전쟁수행을 위한 정부의 힘을 증가시켜 준다. 셋째, 실제 전장환경에서 생겨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리발전과 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용이 요구된다. 넷째, 지휘관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발전시키고, 지휘통제체제에 있어서 권한의 집중과 분산에 조화를 기하여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요소가 되는 기술적 요소에 관련하여 고도의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연구결론에 도달하면서 論者는 또 다른 몇 가지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클라우제비츠와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에 기반을 둔 국가적 수준의 전략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이 취해야 할 삼위일체적 균형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둘째, 삼위일체적 균형의 해결자로서 군사적 천재를 대체하는 인재교육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셋째, 삼위일체에 기술의 요소를 더한 四位一體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한국의 안보환경, 군사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질서의 붕괴, 전통적인 안보동맹인 미국의 역할변화,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 등으로 위협의 성격이 다양화되고 있고 主 敵인 북한은 체제생존의 기로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민들 역시 군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신뢰를 보냈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한국의 군사전략기획 관련자들은 미래전략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적 지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민간 정치지도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급속한 군사기

술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의 노력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절차의 단계에서 얼마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에서 제시된 궁극적 해결자로서 군사적 천재 역시 그러한 균형적 사고로 인해 이론의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연구실의 이론가는 우연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戰場의 실천영역을 인정하면서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책수립가와 戰場의 지휘관들은 발전된 이론과 교리를 기초로 하여 分別智의 혜안을 가지고 자신 앞에 놓인 우연과 개연성에 대한 부단한 성찰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승리를 위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론과 실천이 배타적으로 空轉하는 조직에게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나의 재임중에 추구하는 군 발전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미래의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전략가의 자세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방대학원, 「전쟁없는 자유란」, 참고서지, 서울 : 국방대학원, 1984.
- 김영흠, *America Frontier Activities in Asia*, 박무성, 이형대 역, 「미국의 아시아 외교 100년사」, 서울 : 신구문화사, 1988.
- 류재갑·강진석, 「전쟁과 정치」, 서울 : 한원, 1989.
- 이한구, 「역사주의와 역사철학」,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6.
- 임인재, 「논문작성법 : 인문·사회편」,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조경대 외, 「현대사회과학방법론」, 서울 : 민음사, 1977.
- 최병갑 외, 「현대군사전략대강」 I ~ IV, 서울 : 을지서적, 1988.
-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 민음사, 1980.
- 菊地宏, 「戰略基礎理論」, 국방대학원 역 참고서지, 「전략기초이론」, 서울 : 국방대학원, 1993.
- 服部實, 「現代局地戰爭論」, 국방대학원 역 참고서지, 서울 : 국방대학원, 「현대국지전쟁론」, 1988.
-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 「毛澤東 選集」, 김정계 · 허창무 共譯, 「毛澤東의 軍事戰略」, 대구 : 중문출판사, 1994.
- Aron, Raymond, *Clausewitz : Philosopher of War*, Cristine Booker and Norman Stone trans, New York : Simon, 1986.
- _____, *On War*. Terence Kilmartin trans. London : Secker, 1958.
- Clausewitz, Karl Von, *Vom Kriege*. Howard, Michael and Paret, Peter trans, *On War*.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 Press, 1977.
- _____, *Vom Kriege*. 김홍철 역. 「전쟁론」, 서울 : 삼성출판사, 1990.
- Crevelde, Martin Van, 「전쟁의 역사적 변화」, 국방대학원 역 참고서지, 1994.
- Collins, John M. *Grand Strategy*. 국방대학원 역. 「대전략론」, 안보총서, 서울 : 국방대학원, 1979.
- Earl, Edward M. *Makers of Modern Strategy* : 곽철 역, 「신전략사상사」, 서울 : 기린원, 1980.
- Handel, Michael I, *Clausewitz and Strategy*. London : Frank Cass, 1986.

- _____, *Masters of War : Sunzu, Clausewitz and Jomini*. Fortland : Frank Cass, 1992.
- _____, *War, Strategy and Intelligence*, Totowa N. J. : Frank Cass, 1989.
- Howard, Michael E. Clausewitz, 김한경 역, 「클라우제비츠의 생애」, 서울 : 문경출판사, 1986.
- _____, *The theory and Practice of War*, Bloomington : Indiana Univ. 1975.
- Huntington, Samuel P. *The Soldier and the State*, 박두복 · 김영로 공역, 「군인과 국가」, 서울 : 탐구당, 1990.
-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Aldersho Gower, 1983.
- O'Brien, William V.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 War*, 국방대학원 역, 「전쟁의 정당성과 제한전쟁」, 서울 : 국방대학원, 1987.
- Paret, Peter. *Makers of Modern Strategy*, 국방대학원 역 안보총서 53, 「현대전략사상가」(상), 서울 : 국방대학원, 1988.
- Seabury, Paul and Codevilla, Angelo, *War : Ends and Means*, 국방대학원 역 참고서지, 「전쟁의 목적과 수단」, 서울 : 국방대학원, 1994.
- Summers, Harry G, *On Strategy : The Vietnam War in Context*, New York : Dell, 1982.
- _____, *On Strategy II :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lf War*. New York : Dell, 1992.
- Thibault, George E, *The Art and Practice of Military Strategy*, Washington D. C. : National Defense Univ., 1984.
- U.S. Department of the Navy, H. Q. U. S. M. C. *Warfighting FMFM1*, 해병대사령부 역, 「전쟁수행론」, 상교참 300-3-13, 서울 : 해병대사령부, 1992.

〈논 문〉

- 류재갑·김인렬,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사상 연구,” 미발간 교수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학원, 1993.
- Hanley, John T. “Implications of the Changing Nature of Conflict for the Submarine Force,” *Naval War College Review*, Autumn 1993, 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93.
- Lloyd, Richmond M. “Framework for Force Planning,” Naval War College eds. *Fundamentals of Force Planning* Vol. 1, 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90.
- Schumit, Stephen. “A Calls for Official Naval Doctrine,” *Naval War College Review*, Winter 1993, 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93.
- Summers, Harry G. “Clausewitz and Strategy Today,” *Naval War College Review*, March~April 1983. 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83.
- Tashjeon, John E. “Clausewitz : Naval and Other Consider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May~June 1986, 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86.
- Thibault, Edward A. “War as a Collapse of Policy : A Critical Evaluation of Clausewitz,” *Naval War College Review*, May~June 1973, Newport R. I. : Naval War College, 1973.